



행복한 교육을 이끄는  
교육정보 통합지원 포털

# 에듀넷·타-클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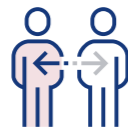
[www.edunet.net](http://www.edunet.net)



교육과정 기반의 다양한  
교육정보를 한손에!



교육정책과 교육자료,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한눈에!



선생님들을 위한 소통,  
자료 공유 커뮤니티 나눔공간!



소식 정보 및 인기키워드!

# 행복한 교육



# CONTENTS

June 2018 Vol. 431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02 **특별기획** 판문점 선언과 평화·통일교육

- 04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다
- 06 민통선 최북단, 교동에 부는 '평화'의 바람
- 10 생생한 통일교육으로 '통일미래' 비전 제시한다
- 13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역사와 과제

## 15 **세계의 교육 변화**

민주시민의식 함양, 통일사회 이룩한 '독일'



07



18



74

## 현장이야기

- 18 **지금! 혁신교육** 남원용성중학교  
우리가 만들어 가는 참! 좋은 학교
- 22 **삶과 교육** 민병운 충주중산고등학교 교사
- 26 **이런 수업 어때요** 신민철 교사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 30 **아하! 진로체험** 충청북도진로교육원
- 34 **클로즈업** 우리 함께 통일로!
- 34 **나눔 실천하는 사람들** 행복한 교실 만드는 언니·오빠 선생님
- 38 **명예기자 리포트** 「부산의 재발견」가족체험 외

## 정책이야기

- 44 **정책N전망** 소수의 천재 아닌 모두에게 열린 영재교육
- 46 **김상곤의 행복한 교육편지** 경쟁을 완화시키는 교육체제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 48 **정책카툰** 자유학기제
- 50 **이슈**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현장
- 52 **대학교육** 대학기숙사, 학생들의 삶과 질을 말하다
- 56 **초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분야 미래 인재
- 59 **꽃 피는 교육자치** 광주/충남/경남/세종



26

## 정보이야기

- 62 **교육 썰전** 고교학점제를 말한다
- 62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수평화로 입시과열 완화
- 64 고교학점제의 성공은 디테일에 있다
- 66 **학급운영노트**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
- 68 **아이의 다락방** 진로를 자꾸 바꾸는 미진이
- 70 **이야기 인문학** 끝나지 않은 전쟁과 그 이유를 사유하게 만드는 소설
- 72 **일상의 심포** 합천, 천년의 신비와 만나다
- 76 **뉴스브리핑**
- 79 **행복 게시판**

## 표지이야기

인천 교동면과 북한 황해도 연백군의 거리는 불과 3km. 판문점 선언 이후, 민통선 최북단에 위치한 교동초등학교(교장 유선식)에도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북한에서 들려오는 대남방송과 교동 해안가 확성기의 대북방송이 한데 섞여 조용할 날이 없던 마을에 확성기가 모두 철거된 것 해맑게 운동장을 뛰놀던 교동초 6학년 사총사들이 "너무 조용해서 어색하다."며 말을 건넨다. 100여 년 교동초의 역사를 새겨온 거목에 기대에 조용히 눈을 감아보는 아이들, 무엇이 그렇게 즐거울까 가르르 웃음보를 터트린다.

특별  
기획

1.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다

2. 민통선 최북단, 교동에 부는 '평화'의 바람

3. 생생한 통일교육으로 '통일미래' 비전 제시한다

4.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역사와 과제

## 판문점 선언과 평화·통일교육



##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다



판문점 선언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공동의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오랜 단절과 군사적 긴장 끝에 전쟁과 분단을 상징하는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 이어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종식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판문점 선언 이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길이 트였다. 그

러나 지난 시기 북핵 문제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걸림돌이나 장벽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우리는 오랜 분단 상처의 치유와 화합, 민족 공동의 번영, 그리고 평화 통일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누적되어 온 남북의 이질감 극복 시급

70년을 넘어선 남북 분단의 해소와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분단은 남북의 제도와 인식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가져왔고, 누적되어 온 남북의 이질감과 적대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이는 비단 남북 간이나 정부 정책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상호 대화와 협력,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인정, 상호간 다름에 대한 수용과 관용 등에 바탕을 두는 교육적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의 청소년 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대내·외적 환경 내에서 태어나고 자라 왔다. 탈냉전과 세계화, 다문화 추세와 정보화 시대 속에 사는 청소년들은 민족동질성이나 민족공동체 의식 강화와 같이 ‘민족’ 중심 논의에 충분한 공감을 갖기 어렵다.

첫째, 분단을 돌아보며 통일이 지니는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둘째, 대화 능력, 조정과 중재 능력을 계발해 나가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나 국가, 민족을 넘어서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오늘날의 평화·통일교육은 기존의 당위적, 민족적 차원에 기반을 두었던 전통적 통일 논의를 넘어서야 한다. 차이와 다양성은 남북 간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기에, 서로의 인식과 생활세계 속에 존재하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오늘날의 평화·통일교육은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갈등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나아가 평화·통일교육은 개인, 사회, 세계적 차원 모두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가치교육,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등과 긴밀한 연계를 두고 그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청소년들 스스로가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 폐해에 대해 돌아보면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통일이 지니는 가치를 인식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감수성과 민감성을 발달시키는 가운데 각자의 통일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통일 의지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상호소통과 대화 능력, 갈등의 조정과 중재 능력을 계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주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를 공유하는 타인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덕성을 갖추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세계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역사회나 국가, 민족을 넘어서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즉 국제 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 평화교육 등 다양한 접근을 연계함으로써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가치를 인식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화의 싹, 통일의 싹을 함께 키워나가길

평화·통일교육은 통일·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통일 의지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발달수준이나 관심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는 놀이·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이나 문화·감성적 접근을 통해 평화·통일교육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가·민족에 등의 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통일 의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자율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탐구에 대한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남북관계의 현황과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와 이해에 바탕을 두고, 통일·북한 문제를 진로나 직업을 비롯한 자신의 삶과 연결 지으면서 긍정적인 통일 미래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평화·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정서와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행위 능력이 고르게 발달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학습자의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통일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탐구와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남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형성하며, 통일을 바라보는 종합적 사고 능력과 탐구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통합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 맞춤형 통일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의지가 제고되고 평화의 싹, 통일의 싹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㉞

### 인천 교동초등학교

## 민통선 최북단, 교동에 부는 '평화'의 바람



인천 교동면과 북한 황해도 연백군과의 거리는 불과 3km. 교동 망향대에서 건너보면 연안읍의 진산인 비봉산과 남산, 남대지 등 드넓은 연백평야가 눈앞에 펼쳐진다. 망원경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신작로를 달리는 북한 주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바로 이곳에 교동초등학교(교장 유선식)가 있다. 교동초는 1906년 교동향교 내 사립 화개농업학교로 설립, 1912년 교동공립학교 6년제로 개교한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운동장 한편에는 파란의 세월과 역사가 오롯이 느껴지는 100주년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민통선 최북단에 위치한 학교에서 아이들은 내일의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있다.

“그동안 황해도 연백군 땅에서 들려오는 대남방송과 교동 해안가 확성기의 대북방송이 한데 섞여 마을에 조용할 날이 없었다.”는 임승환 교감은 “남북 분단의 최전선에서 심리전에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던 확성기를 최근 모두 철거하면서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설명한다.

기자 일행이 학교를 방문했던 5월 25일, 교동초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교육활동이 펼쳐졌다.

1학년 교실에서는 ‘우리나라 여행’을 주제로 평화·통일교육이 이뤄졌다. 한반도의 모습을 알아보고, 한반도의 산을 지도 위에 표시해 본다. 한반도 지도를 보고 북한산, 설악산, 오대산, 속리산, 지리산, 무등산, 한라산,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소백산 등을 깃발에 옮겨 쓰고 한반도 대형 지도 위에 깃발을 세우며 위치를 가늠해 본다. “북한과 친해진다?”이란 이정

하고 이곳에 터를 잡았다.”며 “교동면과 연안읍을 잇는 통일 다리가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수업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은혜(5학년) 학생은 “망향대에서 바라보면 북한이 보일만큼 우리학교는 북한과 가까운 곳에 있다.”며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을 잇는 통일다리를 건너 백두산에도 가고, 평양 냉면도 먹어보고 싶다.”고 말한다.

### 3개교 협력, 교동지구 두레교육과정 운영

유선식 교장은 “교동지역이 북한과 가깝다보니 우리학교는 형식적인 평화·통일교육보다는 실질적인 통일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교동에는 교동초, 난정초, 교동초지석분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두레교육과정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함께하는 교육을 초등학

1. 2. 3. 4학년 학생들이 한반도 지도에 행정구역을 표시하고 있다. 4. 통일다리 만들기 5. 우리나라 여행 지도 만들기



민 교사의 질문에 준서는 “북한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 있는 장난감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한다. 성찬이는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고 싶단다. 스마트 코딩로봇이 한반도 지도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아이들의 고운 마음도 함께 전달되길 바래본다.

4학년 교실에서는 남북한에서 쓰고 있는 도·시·군 구역을 찾아 지도에 표시하는 활동을, 5학년 교실에서는 통일다리 만들기 한창이다. 강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마주보고 있는 현실을 교실에 옮겨 놓았다. 이철우 교사는 “분단 이전에 교동면은 북과 교류가 잦았던 곳이다. 한국전쟁 당시 잠시 남으로 피해 왔던 분들이 분단 이후 북으로 돌아가지 못

교 시절부터 몸에 익혀 통일에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올해 지식초가 교동초지석분교장이 되었고 내년에는 난정초가 교동초로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남과 북도 떨어져 살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통일할 수 있음을 생활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교동초, 교동초지석분교, 난정초의 총 학생 수는 82명으로 두레교육과정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화 나들길 걷기, 교동지구 두레 수학여행, 방과 후 공동 진로적성 교육, 합동체육대회, 문화예술 체험교육, 강화섬 외국어교실 등을 꼽을 수 있다. 강화 나들

길 걷기는 내 고장 도보 순례를 통해 지형적 특성과 자연 생태변화를 관찰 탐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시간이기도 하다. 수학여행도 3개교가 함께 추진하여 4월경 2박3일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교동지역의 소규모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학교 간에도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 학교 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적 열세를 극복하고 있다.

5월 25일은 교동향교에서 학교를 방문, 강연을 하는 날. 난정초와 지식분교의 아이들도 함께 강연을 듣기 위해 교동초교에 모였다. 교동향교는 1127년(고려 인종5년)에 창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로 이날 아이들에게 교동의 역사를 비롯

해 효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이 평화·통일교육의 첫걸음

교동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역사체험, 통일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교동향교를 활용한 전통문화 체험, 강화지역 특산품인 왕골(완초) 공예 전수교육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교동지역에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온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다. 때문에 남과 북의 물리적인 평화·통일교육뿐 아니라 전체가 더불어 사는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임승환 교감의 설명이다. 다문화중심학교를 운영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의 장점을 배워가는 교동초교의 아이들은 물리적인 통일뿐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통일의 꿈을 키우고 있다. ㉠



6. 교동향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7. 교동 망향대 8. 교동초등학교 전경

### 인천학생교육원 통일평화체험기

## 통일과 평화의 시대, 그 이후를 준비하다!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서사체험학습장에서는 '2018 통일평화 체험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통일평화체험 상설 프로그램'은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 준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 체험 참여 프로그램으로 양도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통일과 놀다, 평화야 만나자' 테마로 진행된 양도초등학교의 체

험활동은 강화평화전망대 견학을 통해 변화하는 북한 모습을 보고 느끼는 활동, 탈북 선생님과 함께 북한의 생활 모습 및 우리 문화와의 다른 점 살펴보기, 통일평화를 염원하는 미산가 팔찌 만들기 등이 진행되었다.

현재 휴전선 전망대는 우리나라에 총 14곳이 있고 강원도 6곳, 경기도 7곳 그리고 인천광역시 강화도에 1곳이 있다. 서사체험학

습장에서는 인천 유일의 휴전선 전망대인 '강화평화전망대'를 견학하여 탈북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며 인접한 북한 땅을 직접 보고 느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통일평화교육 강사인 권영숙 탈북 선생님은 “멀어져 있었던 시간만큼 우리는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힘든 순간들도 있겠지만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세계적으로 번창하는 미래가 올 것이다.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북한의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서로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통일 이후, 혹은 평화의 시대에 대비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교육활동 참여의 의미를 말해주었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도초등학교 이서현(6학년) 학생은 “전동회를 타며 북한 지형을 알아봤고, 북한 체육대회 종목인 '병끼

고 공이고, 발끼고 달리기'를 해보았는데 재미있었다. 오후에는 평화전망대에 가서 직접 북한 땅을 보니 가까운 이웃 같다고 생각했다. 오늘 체험 활동이 북한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더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진 상황 속에서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서사체험학습장에서는 통일평화 공감대 형성과 통일 준비 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청소년이 통일과 평화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은 통일 이후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미래 세대의 통일·평화를 위한 인식을 높이고, '통일시대, 평화시민'으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북한체육대회 3종목



병끼고 달리기



공이고 달리기



발끼고 달리기

#### 강화평화전망대



북한 땅 바라보기



북한 지도 해설



북한의 생활상 해설

###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우수사례

## 생생한 통일교육으로 '통일미래' 비전 제시한다



교육부와 통일부에서 공동 주최한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가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는 매년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통일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폭넓고 다양한 학교통일교육 지도 사례」를 연구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제5회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에서 수상한 초등, 중등 부문의 활력이 넘치고 생생한 학교통일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1. 통일동아리(통일또바기) 학생들 (세종 두루중학교)
2. 통일시대 과자 포장 디자인 활동 (서울신당초교)
3. 남북한 낱말 꿀벌 땀따먹기 놀이 (서울신당초교)



### '통일채널 펼쳐라! 통일물고 트여라!'

초등부문 최우수 작품을 수상한 이경은 서울신당초 교사는 학교통일교육이 학습자 배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거꾸로 교실 수업을 도입한 통일채널(C.H.A.N.N.E.L)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였다. 통일채널 프로그램은 Contact (디딤 영상 접속), Homework(배움공책 정리), Aim(배움 목표 확인), Navigate North & South Korea(항해하기), Express(표현하기), Live together(생활 속 관심 높이기, 함께 살아가기)의 흐름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결합한 총 12회기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또한 통일채널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통일안테나활동을 준비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통일안테나활동은 일종의 팝업(pop-up) 활동으로 계기교육,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 대회와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현충원 방문하기, 거북선 띄우기, 평화 통일·나라사랑 티셔츠 만들기 대회, 통일채널 신문 만들기 등을 활동하였다. 통일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인지적 측면의 북한 이해력 기르기, 정의적 측면의 통일감수성 및 민주시민 자질 키우기, 실천적 영역의 통일외지, 역량 다지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 배움 주제로 남북한의 문화재를 비교하고 문화유산해설가 되기, 남북한 동형이의어를 비교하고 골든벨 퀴즈하기, 남북한 요리 실습하고 남북한 간식 비교하기 등도 진행했다. 마무리 회기에는 스스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과 논거를 마련해 '통일의 시기'에 대한 토론도 하였다.

이경은 교사는 전임교에서 탈북 학생 지도 관련 업무를 시

작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후 통일 교육 관련 교사연구회에 가입, 통일 및 탈북학생 지도력 향양에 대하여 연구해 오고 있다. 학생들은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하여 북한에도 점성대가 있고, 고분벽화 같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와 북한은 같은 역사, 같은 말을 공유하는 한민족임을 느끼고, 통일의 문제를 스스로의 문제로 여기는 등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통일시대를 위해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이 중요하다.  
평화·통일교육은 통일시대의 꿈을 설계하는 힘이다.

이경은 교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통일시대를 위해 학교차원의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이 중요하다. 평화·통일교육은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역사를 기억해 내는 힘, 그리고 분단 상황을 극복하려는 힘이다. 또 나아가 통일시대의 꿈을 설계해 볼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며 과거, 현재, 미래

를 연결하여 우리 아이들이 '통일시대를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 참여·체험형, '통일한국 공감 프로젝트' 완성

중등부문 최우수 작품을 수상한 김주연 세종 두루중학교 교사는 통일한국프로젝트반, 전문통일동아리, 통일교육주간 및 통일문화주간을 운영,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통일교육을 학생 참여·체험활동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 통일한국의 모습을 공감하며 행복한 평화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공동체 만들기를 목적에 두고 운영하였다.

두루중학교는 통일교육주간 프로그램을 통일동아리(통일또바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협의를 통해 기획, 운영하고



4

있다. 올해 통일교육주간에는 통일교육원의 소감문 공모 이벤트 참여와 점심시간을 활용해 통일동아리 학생들이 북한 언어바로알기 퀴즈, 평화통일 품으로 표현하기, 북한이탈난민돕기 번개매점, 북한음식 속도전떡 체험전, 한반도 평화통일의 소망 깃대 짚기 등의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주연 교사는 세종시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통일교육수업연구회를 2년째 운영하며, 다양한 학생 중심 체험활동 및 수업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일반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생님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각종 워크숍 및 연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남북한의 통일의 문제가 자신들의 삶의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3만 명의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통일은 한민족의 인권 문제이며 우리 삶의 당연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평화적인 통일에 공감하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역할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교현장에서 학교통일교육을 하고 있다.

김주연 교사는 “몇 차례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의식에 대단한 변화가 갑자기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일에 대해 무관심했던 학생들이 남북한의 문제와 통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변화를 시작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진 행동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정은 교사와 김주연 교사 이외에도 학교에서 학교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있다. 앞으로도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뿐만 아니라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수업 세미나, 연구회 등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②

4. 통일신문을 활용한 통일홍보물 만들기(세종 두루중학교) 5. 북한이탈청년과의 만남 '통통콘서트'(세종 두루중학교)



5

글\_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역사와 과제



남북정상회담 계기교육 '평화의 비행기' 날리기

70년을 훌쩍 넘어선 한반도 분단 역사 속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점차 줄어들어가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다. 나이가 젊을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sup>1)</sup>, 이 점은 지난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2, 30대의 높은 반대 여론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sup>2)</sup>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며(84.6%), 전체 응답자의 75.5%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여기에는 연령별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20대 72.8%). 이 경향은, 통일 지향적 사회적 환경이 통일 관련 의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 통일교육의 역사는 이념 갈등의 역사

통일교육 역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안보와 평화가 교차적으로 강조되는 이념 갈등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렸던 요인 중 하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 수립 이후 1980년대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반공교육’이었다.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주로 반공, 멸공, 승공 등을 강조하며 남북한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북한 체제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남한 체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왔다. 반공교육은 이 시기 하나의 국가통치 이데올로기로서 학교교육을 지배했었다.<sup>3)</sup>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고 동서독이 통일되는 등 세계적 냉전체제가 약화되면서 이후 남북 관계에서도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이 채택되어 1992년에 정식 발표되는 등<sup>4)</sup>, 실질적인 남북관계 변화 전망이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때 ‘통일안보교육’이라는 명칭이 초·중등교육과정(5차 교육과정)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후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할 동포라는 이중적 인식

1. 전체 2007년 63.8% → 2017년 53.8%  
20대 2007년 53.3% → 2017년 41.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2006). 2007통일외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2018). 2017통일외식조사.  
2. KBS 방송문화연구소 여론조사, [http://news.kbs.co.kr/datafile/2018/05/01/0501\\_20.pdf](http://news.kbs.co.kr/datafile/2018/05/01/0501_20.pdf)  
3. 정현백·김엘리·김정수(2002).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4. 통일부 통일교육원(2013). 통일문제 이해. p.141.



이 표현되기 시작했다.<sup>5)</sup> 이전의 공격적 의미의 ‘반공’, ‘승공’이라는 표현이 이 시기에 체제 수호 차원의 ‘안보’개념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문민정부에 들어와 초중등교육과정(6차 교육과정)에서 ‘통일안보교육’이 ‘통일교육’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안보교육은 통일교육의 하위 개념이 되었다.<sup>6)</sup>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통일교육 관련 논의의 지평도 확대되어 사람과 의식의 통합,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sup>7)</sup>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상호 접목이 강조되고 평화공존, 공동번영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된 것도 이때라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에는 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건설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의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평화보다는 안보와 남북한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었고 남북한의 극한 대립 상황이 이어졌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화’와 ‘남북교류’에 다시 방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실제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이라는 가시적 결과를 낳았다. 며칠 후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 등 이후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들과 남북 교류협력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 통일 친화적인 범사회적 환경 조성

젊은 세대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현상을 통일교육을 경시하는 학교교육 탓이라 비판하는 목소리를 종종 듣곤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일 친화적인 범사회적 환경 조성이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이러한 환경 조성에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세대를 불문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은,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 통일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가, 관련 수업 시수가 얼마나 되는가의 문제가 아님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 조성된 사회적 분위기는 평화와 화해협력이 안보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 지향적 통일에 대한 관심과 안보의식 사이에 이념적 대결 구도를 조성하는 사회적 풍토는 아직도 견재하다. 여전히 도덕/윤리, 사회/역사 관련 교사가 아니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중복 성향’이라 의심받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교육과정에 통일교육 관련 내용과 수업 시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통일에 대한 관심은, 남북한 주민 모두의 평화로운 삶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남북의 문제를 넘어서서 남한 내에 존재하는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일상의 삶에서 평화를 되찾고자 하는 관심 그 자체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㉔

5 정현백·김엘리·김정수(2002).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p.10.  
6 정현백·김엘리·김정수(2002). 위 보고서, p.25.  
7 조정아(2007).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 민주시민의식 함양, 통일사회 이룩한 ‘독일’



이 글에서는 독일 통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 전과 통일 후에 어떤 통일교육을 해 왔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통일 전 독일의 정치(사상)교육

통일 전 독일에서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서독) 또는 정치사상교육(동독)이라는 이름 아래서 행해졌다. 독일은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통일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통일 전 서독에서 실시한 ‘정치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교육 안에는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과 더불어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이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적 가치관, 지식,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정치사회 활동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교육을 말한다. 평화교육이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 공격성 등 비평화적 요소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서독의 정치교육이 통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았으나, 학생들에게 국제정세 이해, 동독 이해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였고, 동독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 민족의식을 강조하면서 통일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전 동독에서 실시한 ‘정치사상교육’은 사회주의 이념을 교화시키는 교육이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가르쳐 사회주의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정치사상교육의 주 관심사였다. 통일 전 동독에서 정치사상교육은 교과활동과 교과 외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교과활동으로는 전담교과인 ‘국가시민’ 교과가 있었다. 교과 외 활동으로는 군사교육 및 청소년 조직 활동을 통하여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 전 서독은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의지를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평화적인 갈등해결능력과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서독의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에도 통일후유증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적인 통일사회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갈등해결능력, 민주시민의식 강화

통일 전 서독은 통일교육을 통하여 서독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정착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의지를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평화적인 갈등해결능력과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서독의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에도 통일후유증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적인 통일사회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반면, 동독 지역의 정치교육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통일 전에는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이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통일 후에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즉, 동독식의 사회주의 이념 교육에서 서독식의 다원화된 민주주의 체제를 익히는 교육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는 학생들에게 큰 문화충격을 주었고 많은 적응 문제를 수반하였다. 그러나 통일 직후 통일 정부는 구 동독 지역에서도 서독식의 정치교육을 시키면 서독 학생들처럼 민주적인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적인 시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다. 동독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이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데에는 훨씬 많은 시간이 요청되었다. 40년 동안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교육이 내면화된 사람들의 의식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결과 통일 초기 동독 지역 청소년의 부적응과 정치적 미성숙함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폭력적 행위, 외국인 혐오, 극우주의 등 성숙하지 못한 사고와 행위가 지속되면서 서독식 정치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시민역량과 통합역량이 필요한 때

통일 전후 독일에서 실시된 통일교육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 통일 전 서독이 실시한 정치교육이 서독 학생들의 통일역량과 통합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통일교육이 통일을 준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지평을 확대한다면, 시민역량과 통합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의 지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통일 한국사회에서 민주적 가치에 기초한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존중하고,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공동체 안에서 남북한 국민들이 국가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의 생활세계를 이해하고, 이질성을 포용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통합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과 더불어 평화를 강조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남북한은 서로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어 상호 적대감과 대결의식이 동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화교육’의 중요성이 훨씬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 간의 갈등, 반목, 적대감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공존·공영 속에 하나의 통일공동체를 건설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반 조건으로서 평화교육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점은 통일의 과정뿐 아니라, 통일 이후를 내다볼 때에도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구 동독 학생들의 부적응과 갈등 양상이 특별히 통일 초기에 심각하였던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통일 초기 사회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 심리적 갈등이 폭력과 부적응으로 표출되었는데, 남북통일 이후 북한 청소년들 역시 심각한 부적응과 갈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평화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식보다는 체험과 역량 중심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통일교육의 내용을 통일과 북한 이해에서 벗어나,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갈등극복 교육, 상호이해 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교육의 방법을 ‘지식 중심’에서 ‘체험 중심’, ‘행위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분단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통일의 장점을 이해하고, 북한을 이해하고, 직접 만나서 겪어보면서 통일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 이주민, 특히 탈북 학생들과의 만남과 어울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어야 한다. 또한 통일 후 일시적으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준비시키고, 북한 국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독일이 통일 전에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직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알려주고, 우리의 다음세대 또한 통일역량, 평화역량, 통합역량을 갖추도록 지금부터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②

## 남원용성중학교

# 우리가 만들어 가는 참! 좋은 학교

학교 사랑을 해달라는 질문에 3학년 한 학생은 “우리가 학교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서 학교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물씬 풍긴다. 남원용성중학교(교장 김대근)는 그동안 수업혁신, 학생자치, 창체동아리 3가지 측면에서 교육혁신을 모색해 왔다. 혁신학교 4년차인 남원용성중은 어느덧 결실을 맺어 학습자 중심의 수업혁신이 이뤄지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학교의 교육철학인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공동체’에 한 발 다가가고 있다.



“항상 학생이 학교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제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우리학교는 선생님 이 기획하고 학생이 따라가는 식이 아니라 우리가 행사를 기획하고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요.”

남원용성중학교의 자랑거리를 묻자 유재상(3학년) 학생은 학생 주도의 자치활동을 손꼽았다. 그동안 학생자치부 동아 리에서는 ‘1년 뒤 나에게 편지쓰기’ 행사를 비롯해 지리산 둘 레길 안내, 학교생활규칙 논의, 학생 건의함 확대 설치, 화장 실 시설 개선, 체육물품 대여제 실시, 남자화장실 칸막이 설 치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모든 활 동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었다.

### 남원의 전통을 잇다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남원용성중학교의 창체동아리 중에는 ‘청소년 국악관현 악단’이 있다. 국악의 성지로 손꼽히는 남원에서 용성중은 국악관현악단을 통해 민족혼을 불어넣으며 전통문화를 계 승하고 있다.

김대근 교장은 “남원시에는 남원초와 도통초 국악오케스 트라단, 국악고등학교가 있다. 그동안 초등학교와 국악고를 연결할 수 있는 가교가 없었는데, 작년에 우리학교에 국악 관현악단이 만들어졌다.”며 “국악이 단절되지 않고 초등학교와 국악고를 연결하여 연속성을 갖고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게 되어 사명감을 느낀다.”고 설명한다. 용성중학교는 지난해 24명의 단원을 선발하였으며, 전북교육청과 남원시

청, 춘향장학재단에서 지원한 재원 4천500만 원으로 악기 구입과 강사진을 꾸려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그해 12월경에 는 창단 첫해를 기념해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창단 연주회도 가졌다.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의 가야금과 거문고 합주로 시 작된 첫 연주를 비롯해 졸업생의 축하공연(춘향가 중 사랑 가), 국악관현악단 전체가 어우러진 ‘축연무’, ‘산도깨비’, ‘소 금장수’, ‘아름다운 나라’, ‘태평성태’는 국악기만의 매력을 뽐 내며 관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했다.

올해에는 단원이 46명으로 늘었다. 남원시청과 춘향장학 재단의 재정지원(3천만 원)으로 부족한 악기를 보충할 수 있 었다. 또한 주1~2회 국립민속국악원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 문해 가야금, 거문고, 아쟁, 대금, 피리, 해금, 타악 파트별 교 육을 해오고 있다.

“도통초 국악오케스트라단에서 거문고를 연주했다.”는 양 혜정(3학년) 학생은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에서 피리를 맡고 있다. “국악관현악단이 작년에 생겼지만 대부분의 단원이 초 등학교 때 국악기를 다뤄본 경험이 있어요. 국립민속국악원 의 전문 선생님에게 국악기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동 아리의 최대 장점이에요.”

46명의 단원이 소리를 맞춰볼 때면 국악기의 화음이 너무 아름다워 소름이 돋는다는 양혜정 학생은 “국악오케스트라 단과 국악관현악단에서의 경험을 살려 미래 국악인의 꿈을 키우고 있다.”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국악고 진학을 준비 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1. 지난해 창단한 남원용성중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2. 국립민속국악원의 전문 강사가 학생들을 지도한다. 3. 매달 열리는 공개수업





**동아리-자치활동 통해 배우는 삶의 자세**

학생자치부,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등 남원용성중의 창체 동아리는 무학년제로 운영된다. 모든 강좌는 학생들의 수요를 우선 반영한 후 지도교사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선신영(혁신연구부장) 교사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먼저 조사한 후 10명 이상이 되면 동아리를 조직한다. 필요한 경우에 외부강사를 투입하는데, 혁신예산 중 1/3을 강사비로 사용할 만큼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 창체동아리는 자율동아리로 이어져 현재 학술, 스포츠, 예술, 노작 등에서 21개의 자율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김대근 교장은 “동아리활동과 자치활동이 별개 같지만, 실

은 동아리활동을 통해 자치가 활성화되고, 자치를 통해 동아리가 활성화된다. 진로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며 “여가를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 공간과 시간으로 만들어 알차게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로 이어지는 혁신교육**

혁신과제 중 하나인 ‘수업혁신’은 남원용성중학교에서도 교사들 간에 뜨거운 감자였다.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을 빼놓고 혁신을 이야기하기 어려웠다는 것. 용성중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축해 교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혁신학교 추진단계에서부터 조직된 혁신연구부가 중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개인은 흔들리지만 함께 하면 힘이 된다.”는 선신영(혁신연구부장) 교사는 “매주 수요일을 배움과 성장의 날로 정해 맞춤형 연수, 전문가 초청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사 연수’와 ‘교사 동아리’를 축으로 운영 중이다. 교사 연수는 맞춤형으로 이뤄지는데, 신규 및 전입교사는 3월초 혁신학교 및 배움의 공동체 연수를 통해 혁신학교의 교육철학을 공유해 오고 있다. 4월경에는 기존 교사의 수업시연을 통해 기존 교사, 신규교사, 전입교사가 수업활동에서 어려운 점을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배움 중심의 수업을 위해 자체 강사를 초빙하여 연수를 진행하기도 하며, 각 교과별로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배움의 공동체 수업, 하브루타 수업, 거꾸로 수업 등의 연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용성중은 학년 수업연구동아리, 독서토론동아리 ‘다락’,



수업성장동아리, 학교 혁신동아리, 교사친목동아리 등 교사들의 동아리도 활발하다.

김숙현 교감은 “각 학년 수업연구동아리가 결성되어 있는데, 각 학년 담임교사를 주축으로 교과교사가 함께 결합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한다.

수업을 공개할 시 지도안을 교과교사끼리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년 수업연구동아리 선생님들이 모여 지도안을 공동으로 살피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것도 특색있다.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다양한 수업방법과 수업 디자인을 연구하는 수업성장동아리, 혁신학교의 전체 틀을 짜고 진행하는 학교

혁신동아리 등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동료성과 전문성을 키워나간다.

특히 얕과 얇이 하나 되는 평가를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로 이어지는 과정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 영어과 박순선 교사는 “절망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라며 “글쓰기를 잘하지 못해도 도움끼리 물어보고 나누고 한영사전을 찾아보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조금씩 영어로 써보게 된다. 교사는 답이 아닌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올해 혁신학교 4년차인 남원용성중은 어느덧 결실을 맺어 학습자 중심의 수업혁신이 이뤄지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학교의 교육철학인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공동체’에 한 발 다가가고 있다. 7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며 호연지기 기른다**



지리산 둘레길 걷기

지리산 둘레길 걷기는 용성중 학생들에게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일등공신이다. 사계동행 걷기를 통해 호연지기 함양과 관계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연과 친해지며, 자연을 이해하고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다.

2학년 유신영 학생은 입학한 이래 한 번도 행사에 빠지지 않고 지리산 둘레길 걷기에 참여해 왔다고 한다. 유신영 학생은 “5월 중순 인월과 금계를 잇는 지리산 둘레길 19.3km를 5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졸업하기 전에 19개 코스에 도전해서 274km의 지리산을 모두 돌아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한다.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둘레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21개읍·면 120여 개 마을을 잇는 19코스 274km의 장거리 도보길이다. 올해에는 숲속에서 나를 만날 수 있는 ‘원천-운봉’ 코스, 통영별로를

따라 역사와 옛길을 찾아 걷는 ‘운봉-인월’ 코스, 성찰과 상실의 길, 그리고 생명을 꿈꾸는 길 ‘인월-금계’ 코스, 민초들 삶의 흔적과 아픔을 만지며 걷는 길 ‘금계-동강’ 코스, 치유 받을 영혼, 사랑으로 보듬는 길 ‘동강-수철’ 코스, 지리산 자락 물 낙동강 되듯 흐르는 물처럼 인연의 끈을 잇는 길 ‘수철-성심원’ 코스, 웅크린 나에게 손을 내밀어 탁 트인 가슴으로 의연해지는 길 ‘성심원-운리’ 코스, 지리산의 나무, 풀, 돌, 물 등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걷는 길 ‘운리-덕산’ 코스를 돌아볼 예정이다.

김대근 교장은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동안 웅장한 자연의 힘에 우리가 자연 속의 일부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옛 선조들이 걸었던 길을 걸으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15코스를 완주한 학생 10여 명에게는 제주도 올레길을 7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지리산 둘레길 걷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올해부터는 남원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남원시민, 남원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참여한 행사로 확대되었다.

- 4. 학교를 문화를 바꿔나가는 ‘학생자치부’
- 5. 복도에 게시된 학생들의 시화
- 6. 남원용성중학교 전경
- 7.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김대근 교장





신민철 교사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디지털 신기술 접목한 실감형 수업디자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디지털교과서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의 초·중학교에 보급·완료하게 된다. 전교생이 60명으로 농촌 소규모학교인 대구하빈초등학교는 지난해 이 수업의 시범학교로 운영된 바 있다. 5학년 1반 아이들은 스마트기기와 함께 우리 마을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1. '어떻게 하면 친환경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댄 아이들
2. 마천산 터널 짓기에 5학년 아이들의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3. 신민철 교사는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의 특징에 대해 "학습의 조력자가 되는 것" 이라고 설명한다.

열두 명 학생들 사이에서 열린 토론이 펼쳐졌다. 대구하빈 초등학교(교장 서영삼) 5학년 1반 교실. 사회교과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수업이 진행 중이다. 학생들은 학교 바로 옆 마천산에 터널을 짓는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신민철 교사가 제시한 '친환경을 생각한 우리 마을 개발 프로젝트를 세워봅시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은 한동안 토론을 이어갔다. 학생들의 책상에는 모두 태블릿PC가 한 대씩 놓였다. 전 학년 한 학급씩으로 전교생이 60명인 소규모학교 대구하빈 초교는 지난해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시범학교로 운영됐다. 신민철 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5학년을 대상으로도 이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수시로 운영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은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의 학교에 교과서 보급을 완료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보급 중인 디지털교과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까지 제공해 학습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디지털교과서 77쪽을 펴 보자”

“자, 이번에는 다 같이 디지털교과서 77쪽을 펴 보자. ‘야생

동물을 어떻게 보호할까?’라는 문항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 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찾아서 선으로 이어주세요.”

인간이 만든 도로와 철도, 수중보 등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된 동물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다. 선생님의 주문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은 모두 “수로의 독이 있는 곳엔 수중 생태 통로를, 기차가 지나다녀야 하는 곳엔 터널형 생태 통로를, 차들이 지나다니는 곳엔 육교형 생태 통로를 지어야 한다.”며 해답을 찾아 선을 이었다.

이날 수업의 모두에서 5학년 1반 아이들은 마천산 터널 짓기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정민규 학생은 “터널을 지으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반대했다. 반면 최지호 학생은 “산을 꾸불꾸불 돌아 도로를 내려면 건설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면서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마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터널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열두 명의 학생들은 반대와 찬성 의견, 또 그 이유를 경청하면서 자신의 소신 발언을 이어가곤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청하던 신 교사는 이어 태양광 발전, 풍력과 수력발전, 그리고 뉴욕의 센트럴파크 사진 등을 아이들에게 제시해 보여줬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민규가 재빨리 손을 들면서 보충설명을 이어갔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신선한 공기를 얻기 위해 저 사진처럼 도시에서는 공원도 반드시 필요하구요.”

‘우리 마을 친환경 개발 프로젝트’

신 교사는 이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의 특징에 대해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만이 아니라, 학습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스마트기기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학업능력이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의견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소통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디지털교과서와 무선인프라를 통한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은 아이들이 자기 주제를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수업

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지식을 암기하면 아이들이 일주일이면 금세 잊히지만,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난상토론이 끝난 뒤 학생들은 ‘하빈, 다사, 서재’ 등 3개 모둠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모둠원끼리 의견을 조정한 뒤 친구들과 앞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다. 서재조에 속한 김자은 학생은 태블릿PC 화면 가득 에스컬레이터 사진을 검색해 올려두었다. 또 하빈조의 오현아 학생은 태양광 패널 검색에 한창이다. 다사조의 김경민 학생은 풍력발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정수시설 사진을 열심히 찾았다.

드디어 각 조의 프레젠테이션 시간. 하빈조는 먼저 풍력발전소 개발계획을 소개했다. 또 현아는 마천산에 친환경 캠퍼스를 조성하여 그곳에서 맑은 공기를 맘껏 마실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사조는 금호강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정수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는 공원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서재조의 자은이는 “마을 어르신들이 고지대에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를

건설하고 싶다.”고 했다. 또 도예랑 학생은 “금호강에 오리 배를 지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오리축제를 열겠다.”는 당찬 계획을 세웠다.

“진짜 오리배가 생기면 좋겠다!”

발표가 끝난 뒤 학생들은 인터넷 기반 협력학습 플랫폼인 구글 클래스룸에 다시 접속했다. 그리고 이날 발표를 가장 잘한 팀을 뽑는 투표 시간. 하빈조가 41.7%로 친구들의 지지를 획득, 최고의 발표팀으로 선정됐다. 신 교사는 이어 학생들에게 수업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학습 플랫폼에 댓글로 남기도록 요청했다. 예랑이는 댓글에 ‘진짜로 오리배가 생기면 좋겠다. 그리고 재밌다. 풀썽 시간이었다.’라고 적었고, 최지민 학생은 ‘그냥 발전하는 것보다 친환경으로 발전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적었다.

대구하빈초교는 지난해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시범학교가 되면서 각 교실마다 무선인터넷환경을 구축했다. 학생 1인 1스마트기기로 최적의 디지털 교육환경도 갖추었다. 최근 이러한 디지털 교육환경이 입소문이 나면서 벤치마킹차



6

방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각 교실마다 스마트TV는 구비가 되었지만, 스마트칠판은 미비된 상태라 아쉬움도 없지 않다.”는 게 신 교사의 전언이기도 하다.

신민철 교사는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아프리카 우간다에 다녀왔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아프리카 교육공여 사업 솔라스쿨(Solar School) 팀원들과 함께였다. 신 교사는 “우간다의 현지 교원들에게 우리의 ICT 활용 교육 노하우와 그 효과에 대해 소개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개했다. 7

4. 5.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아이들이 스스로 수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 모둠원 간에 의견을 조정한 후 자료를 검색, 수집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아이들  
6. 디지털교과서



4



5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지도노하우



1 거꾸로 학습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능동적 학습자로서 아이들이 집에서 EBS 영상 등 수업과 관련한 공부를 사전에 해 오도록 한다. 이후 학교 수업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심화된 토론과 과제 풀이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2 PBL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을 구현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갖추어야 할 미래역량으로 의사소통능력, 분석적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인간관계능력 등이 주목받는 시기다. 대구하빈초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도 아이들에게 PBL(Problem Based Learning)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3 학습의 콘텐츠는 교실 내에서만 국한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구글지도를 보면서 우리 마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찾는다. 학교 근처 공장에서 스쿨존을 오가는 트럭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침범하는 사례를 면사무소에 민원으로 제기했다. 또 지난해 마을 어르신들에게 하루 10분씩 전화를 드리는 ‘행복 콜센터’를 만들자는 정책제안을 하기도 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수업을 통해서다. 이처럼 학생들의 토론 주제는 교실 내에만 갇혀 있지 않으면서 사회와 연계되어 있다.

## 소수의 천재 아닌 모두에게 열린 영재교육



한 번의 시험이나 선발절차를 통해 누가 영재이고, 누가 아닌지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재능과 열정을 보이는 더 많은 학생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시대의 영재교육의 소임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직업, 사회 구조, 삶의 방식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다. 이전과 달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현상을 꿰뚫고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창의적 성취를 통해 해당 분야의 진보를 끌어낼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3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기존 소수의 엘리트층을 위한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서, 해당 분야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탐색하고, 실험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재능개발로서의 영재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재능개발의 관점에서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의 포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영재교육의 문턱은 높은 편이다. 영재교육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전형요소가 있지만 여전히 지필고사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영재교육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제4차 계획에서는 한 번의 선발절차를 통해서 당락을 결정하기보다는, 우선 희망하는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개방된 프로그램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이면

이후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진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제4차 계획에서는 ‘영재교육 진입 전 예비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자신의 재능을 탐색,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둘째, 영재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영재교육의 선발과정에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특정 계층에 유리한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진입 전 예비프로그램 등 ‘교육을 통한 선발’을 확대하고, 교사관찰추천제를 내실화하여 그동안 선발되지 못한 소외집단이 선발될 기회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그동안 소외집단에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학정원 할당제(입학정원의 10~20%)가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지원자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낮은 학업준비도로 영재교육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위해 제4차 계획에서는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학습준비도가 낮은 영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들을 포함하였다. 소외계층 영재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법제화하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이를 골자로 한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외영재 4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최대 9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영재키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영재교육의 개별화를 위한 노력이다.** 영재교육 대상자들의 관심, 흥미, 수준에 있어 많은 차이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한 과정으로 입학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단일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아야 했다. 향후 영재교육 기관은 다양한 모듈형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 관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계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재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업 이외에 다른 기관의 캠프, 대회 등 활동도 학습인정을 통해 정식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재학생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진 영역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엄청난 추진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영재학생들에게 통일된 교육과정을 부과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넷째,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이다.** 그동안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영재학교를 제외한 초중학교 단계의 영재교육은 정규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진다. 영재학생들에게는 정규교육과정에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교육의 비연속성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영재교육에 진입하지 못한 잠재력 있는 학생들에게는 영재교육에 접근할 기회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방안이 제안된 상태이다. 정규과정에 개설되는 프로그램의 성격, 수강자 선정방식(자격요건), 이수결과 기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정책연구와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 모델을 만들고 확대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인식에는 영재교육이 소수의 천재를 위한 특별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영재교육이 발전하면서 영재성이 지적능력이라는 단일 요인에 의해 정의될 수 없으며, 누가 영재인지를 엄밀하게 가려내겠다는 시도도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해당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자들-현재의 성취자이든, 잠재력 보유자이든-에게 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변화무쌍함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 속에서 한 번의 시험이나 선발절차를 통해 누가 영재이고, 누가 아닌지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재능과 열정을 보이는 더 많은 학생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시대의 영재교육의 소임이 아닐까 생각한다. ②

김주아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필자는 영재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으로서 재직하며,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중앙영재교육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상곤의 네 번째 교육편지

## 경쟁을 완화시키는 교육체제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근간은 차별적 특혜를 배제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여 교육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헌법정신이 추구하는 교육정신입니다.

행복한 교육 독자 여러분!  
교육부 수많은 교육 정책 중에서 언제나 가장 큰 관심과 논란이 집중되는 것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 정부까지, 역대 정부 대다수는 대학 입시제도를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개편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때마다 국민들이 대입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진 이유는 교육적 이해당사자이고 국민 전체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국민 요구 모두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한국교육만의 독특한 특징이 대입제도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서구 국가들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겪어 왔던 변화의 총량을, 불과 몇 십년이라는 단시간 내에 모두 경험하는 압축된 근대화 과정을 밟아 왔고, 교육은 그 핵심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개인은 세대 간 사회적 신분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욕망을 교육에 투사시켰고, 이는 자연스럽게 모든 교육활동이 대학입시로 귀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육은 나와는 다른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상의 방식으로 이해되었고, 실제로 부모의 교육열을 바탕으로 자식들은 부모보다 높은 학력과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는 입학경쟁을 통한 대학의 서열화를 가속시켰고 입시 경쟁은 날로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한국인들의 평등주의가 특권의 해체가 아니라 지위상승의 평등주의라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갖는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서구에서와 달리 한국사회는 전통적 신분 문화가 유지되면서 학력을 얻어 관직으로 나가는 방식이 보편화되었고, 학력주의 의식이 일반 대중들에게

폭넓게 침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역대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효용 여부보다 입시정책 위주의 처방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던 이유일 것입니다.

### 대학 입시 교육문제의 출발점이자 귀결점

자연스레 국가가 교육과 관련하여 하는 일은 강력한 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철저히 입증 가능한 것,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며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방식의 대학입시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른바 ‘스카이’를 정점으로 한 가파른 피라미드형의 대학 간 서열체계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학 간 서열체계는 학벌사회로 지칭되는 사회구조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모든 교육을 대학입시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입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지금까지 수행해 온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형식이었지만, 실제로는 대학서열체계 속으로 편입하는 수단이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선발의 역할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입시문제야말로 교육문제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행복한 교육 독자 여러분!  
한국교육이 단시간에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수준의 향상을 이루어내는데 강력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은 계층이동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교육제도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이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인권 침해를 용인하는 등 학교교육을 왜곡시켰고, 모든 교육개혁의 흐름을 좌절시켜 왔다는 비판에 오랫동안 직면해 왔습니다. 더욱 문제

가 되는 것은 교육정책이 공교육의 문제를 지나친 규제와 관리 위주의 비효율성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개인 간 선택과 경쟁을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어져, 개인의 경쟁과 계층과 지역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유행하는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은,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부모 영향에 따른 비능력적 요인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청년들의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용어들입니다. 이처럼 교육 정의를 개인 간의 선택과 경쟁을 통해서만 구현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교육제도의 신뢰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고 맙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교육은 개인의 노력을 통한 능력주의의 실현보다, 부모의 구조라는 비공식적 보험이 중요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출발점에서부터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원이 없으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자조도 깊습니다. 문제는 교육불평등은 돈이 증여되고 상속되는 것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이는 곧 학교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는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우려일 것입니다.

###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일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근간은 차별적 특혜를 배제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여 교육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헌법정신이 추구하는 교육정신입니다. 온전한 능력주의가 정의롭게 구현되도록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서열화하고, 시험 점수의 높고 낮음이 인간 존엄성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체제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중심에 둔 교육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학업 성취 결과의 차이가 인간에 대한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은 앞서 나가고 어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낮습니다. 이렇게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부의 속도는 모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능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만, 시험 성적과 등수가 개인 간의 모멸과 열등감으로 작동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업 성취의 속도와 숙달도에 있어서 차이가 날지 언정, 그것 때문에 다른 학생을 무시하거나 또는 무시 받아서 안 되는 것은 교육의 기본원리입니다. 학교에서 모든 학생은 성취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한 경쟁을 완화시키는 교육체제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쟁을 완화시키는 교육 체제는 정의로운 능력주의가 구현되어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되는 것과, ‘용’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엄한 개인이 되도록 교육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한 대입제도를 잘 설계하고 정착시키는 노력과 함께, 긴 호흡으로 능력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경쟁을 완화시키는 교육체제에 대한 고민과 토론에 독자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②





## 대학기숙사, 학생들의 삶과 질을 말하다

교육부는 대학생 주거안정 및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질 좋고 저렴한,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확충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 기숙사를 개관하거나 개관 예정인 대학교는 총 19개교에 이른다. 대학생 9,462명이 새로 마련된 이곳에 입주하게 된다. 총 2,753억 원이 투입돼 올해 새로 건립한 대학기숙사는 내진설계는 물론 2인실 운영으로 학생들의 주거여건이 종전보다 대폭 개선되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1.2%를 차지했다.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16%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주거환경이 그만큼 녹록치 않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대학생 주거안정 및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질 좋고 저렴한,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확충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 기숙사를 개관하거나 개관 예정인 대학교는 총 19개교에 이른다. 대학생 9,462명이 새로 마련된 이곳에 입주하게 된다. 총 2,753억 원이 투입돼 올해 새로 건립한 대학기숙사는 내진설계는 물론 2인실 운영으로 학생들의 주거여건이 종전보다 대폭 개선되었다. 또 세미나실, 대회의실,

1. 2인실로 운영되는 기숙사    2.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입구    3. 행복센터



도서열람실, 체력단련실, 공동취사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국립대의 민간임대형기숙사(BTL)로는 인천대 등 7개교에서 모두 5,631명의 대학생이 새로 입주하게 된다. 또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저금리의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건립한 사립대 행복(공공)기숙사 4곳(강릉영동대, 대경대, 원광보건대, 전주비전대)에서는 1,469명의 대학생이 새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어 2019년 1학기 중에 성공회대, 한성대, 인천재능대, 신한대, 수성대 등 5개 대학에서 행복(공공)기숙사가 추가로 개관될 예정이다. 내년 이들 5개 대학 행복(공공)기숙사 수용 인원은 1,647명이다.

### 쾌적하고 뛰어난 보안성, “좋아요!”

여러 유형의 기숙사 중에서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복(연합)기숙사를 비롯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연합기숙사 등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거공간이다. 특히 연합기숙사의 경우 단순한 정주 생활관 개념에서 탈피하여 교육, 여가, 생활문화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 1학기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의 입주경쟁률은 7:1을 넘었다. 이곳 홍제동 연합기숙사를 비롯하여 부산(1,528명 입

주), 그리고 2020년 3월 입주 예정인 서울 동소문동(750명) 기숙사와 천안권 연합기숙사(600명) 등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기숙사들이다.

5월 30일, 홍제동 연합기숙사에서 만난 지슬비(상명대 대학원) 씨는 대학원 3학기를 맞아 한 학기 동안 머물 거 주공간을 물색하던 중 이곳에 입주하게 됐다. 교내 기숙사와 자취경험이 모두 있다는 지슬비 씨는 “무엇보다 쾌적하고 보안성이 뛰어나서 입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제동 연합기숙사는 입학생의 85%가 여학생. 철저한 보안 등으로 여학생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다고 한다.

지슬비 씨는 현재 상명대의 추천으로 이곳에서 사감으로 일하며, 입학생들을 위한 지원업무도 맡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명대로부터 학비 지원 명목으로 장학금 수혜와 기숙사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취재하면서 만난 이승호(상명대 대학원) 씨는 이곳 생활에서의 만족감 중 하나로 “바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꼽았다. 홍제동 연합기숙사는 입주 학생들의 의견수렴 결과 95%의 찬성으로 구내에서 식당이 위탁 운영 중이다. 타 기숙사 대비 가격도 저렴한 편이지만, 무엇보다 맛이 있다는 게 이승호 씨가 들려준 평가다.

- 4. 독서실
- 5. 6. 체력단련실
- 7. 식당
- 8. 야외정원
- 9. 야외운동장



### 배려·존중 가르쳐준 연합기숙사

2014년 9월 문을 연 이곳 홍제동 연합기숙사에는 1·2인실과 4인실로 각각 운영 중이다. 2인실 기준 기숙사 비용은 26만 1,000원. 여기에 가평군, 김천시, 창원시 등 지자체 및 참여대학별 지원금 5만~15만 원을 합산하면 2인실 기준 기숙사비는 평균 18만 원 선이라는 게 윤병춘 행정실장의 설명이다. 기숙사비는 현금분할납부(2/3개월 분할)와 우린은행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윤 행정실장은 “입사생들을 위한 최고의 혜택은 기숙사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면서 그에 대한 묘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지슬비 씨가 꼽는 이곳 홍제동 연합기숙사의 또 다른 매력은 “여러 대학 학생들이 생활하는 만큼 서로 조금씩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점”이라고. 때로는 룸메이트와 갈등을 겪는 날도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런 사소한 경험들이 쌓여 입사생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이로 거듭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입주한 지 넉 달여, 그동안 입사생으로서, 혹은 사감으로 일하면서 느낀 아쉬웠던 점은 없었을까? 지슬비 씨는 “정해

진 규율과 규칙은 엄격하게 지키되, 기숙사 내에서도 여느 가정 못지않게 따스함이 묻어나는, 그런 공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례로 축구를 좋아하는 입사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월드컵 응원도 함께 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조심스레 소개했다. 이 제안에 대해 윤병춘 행정실장은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한국팀 중계방송의 공동 시청과 응원을 원하는 학생들이 요청해 오면 대형TV 설치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홍제동 연합기숙사는 입주 학생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 출입구 앞에 휴게 공간인 ‘행복쉼터’가 새로 들어섰다. 또 기숙사 정원에는 장미도 심고, 나무도 심어 숲을 새로 가꾸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정서와 심리적 안정을 돕는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지원에 화답하듯 현재 이곳 입주 학생 자치협의회의에서는 인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기숙사의 아름다운 정원 및 휴식공간을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안산과 홍제천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마을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2022년까지 5만 명 추가 입주

또 다른 연합기숙사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난해 3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개관한 대학생 연합생활관이 있다. 이 연합기숙사는 은행연합회 기부 기금으로 건립된 곳. 이곳은 대학생의 안정적 주거 및 신개념의 인재육성 지원공간을 모토로 건립됐다. 이곳에 입주한 대학생들은 금융교육 및 멘토링 지식봉사활동 등을 전개하는 점이 특히 이색적이다. 기숙사비는 2인 1실 기준 월 15만 원. 주거장학금 지원대학 재학생일 경우 월 10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남녀 입주 인원은 1,003명. 지난해 1학기의 경우 총 173개 대학에서 4,001명이 신청, 입주경쟁률 4:1을 기록한 바 있다.

고양 연합생활관의 경우 지방에 사는 부모님을 배려한 가족룸을 제공하고 있다. 또 아파트 형태의 발코니가 있어 빨래 건조 등 쾌적한 생활환경이 장점이다. 또한 명사 멘토링 특강, 인성·인권교육 등 다양한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고양시, 고양 소방서, 고양 경찰서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양시 소속 합창단 음악회 개최, 취업박람회, 이동보건소 등을 마련하고,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등 입주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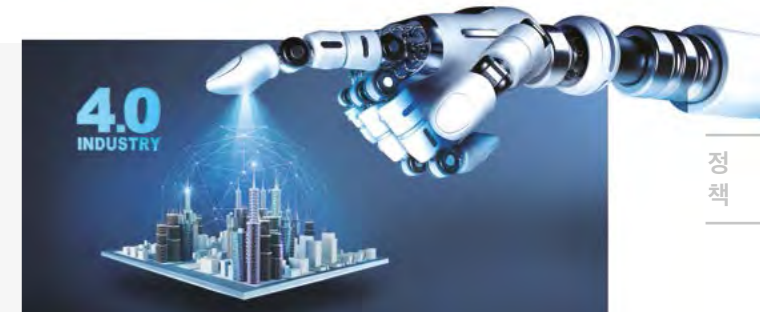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도서관, 식당을 외부인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개선에도 기여한다.

연합기숙사 형태는 대학별 교류가 가능한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다. 이곳 연합기숙사 역시 생활관 내에 60여 대학의 학생이 거주, 타고 대학생 간 교류가 활발하다. 현재 이곳에서는 특정 학교가 전체 입주생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원을 배정, 학교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운영 중이다.

2020년 1학기 중 입주 예정인 한국장학재단의 제2호 응봉동 연합기숙사는 현재 설계 진행 중이다. 올해 9월까지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될 예정(한국수력원자력 기부 기금). 이 연합기숙사에는 원자력발전이 있는 4개 지자체 출신 대학생 1천명이 입주하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민간임대형기숙사, 국립대 BTL 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복(공공·연합)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추가로 건립, 대학생 5만 명에게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분야 미래 인재



정책



제가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미래에 대한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 강연에 들어오시는 청중 분들을 보면 중, 고등학생 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학부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학생과 학부모께서 저를 찾으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묻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면 매년 거의 똑같은 질문이 첫 번째로 나오곤 합니다.

“우리 아이가(또는 제가)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실은데) 어떤 공부를 시켜야(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전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강연장엔 침묵의 시간이 잠깐 흐릅니다. 아마도 제가 정답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하

는 걸까요? 정말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까요? 제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 거꾸로 질문을 했던 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자녀분이(또는 본인이) 수학, 과학을 잘 하시나요?”

그러면 십중팔구는 “아니요”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아마도 질문을 하신 분은 수학, 과학을 잘 하지 못하는데 로봇을 비롯한 인공지능, 바이오, 나노, 빅데이터, IoT 등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수학, 과학을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의 강연을 들으면서 무언가 희망을 찾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럼 반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수학, 과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분께 저는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까요? 저는 답변 대신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보통은 머뭇거리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대답을 이어가면 대부분은 무언가 좋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게임, 요리, 축구, 농구, 여행, 독서, 영화, 음악, 수다떨기, 말하기, 잡자기, 먹기, 낙서하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면 저는 좋아한다고 말한 대상에 대한 상상을 시작합니다. 그

대상을 인공지능 로봇과 연결시키는 상상입니다. 인공지능 로봇과 연결하는 상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로봇은 우리 삶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을 이용하면 게임을 스크린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보조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축구, 농구할 때 상대편이 되어 나의 스파링 상대가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 줄 수도 있고 책 읽을 때 내가 책 읽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필요한 시중을 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로봇에게 영상을 찍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계속 할 수 있지만 아까운 지면만 낭비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4차 산업혁명

제가 상상하는 4차 산업혁명 세상은 이런 상상이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상상속의 일을 사업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수학, 과학을 잘하는 과학자, 공학자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 낼 새로운 산업은 그 분야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분야는 창의력이 필수인데 창의력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창의력과 좋아함은 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분야를 끝없이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계속 되면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창의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산업은 그 분야를 좋

아하는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언가를 좋아하더라도 그 좋아함을 산업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아함을 돈으로 연결시킬 방법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비로소 직업이 되고,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업과 취미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요소들은 우리 모두를 전문가로 만들어 줍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전문가만이 갖출 수 있는 전문 지식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식이 되어 갑니다. 가장 갖추기 어려운 지식이었던 법률 지식, 의학 지식마저도 쉽게 접근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은 한술 더 떠서 그 전문 분야를 실제로 실현시켜 줍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 전문 지식이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닌 세상

이렇게 전문 지식이 더 이상 큰 경쟁력이 아닌 세상이 될 때 가장 큰 경쟁력을 갖춘 사람은 아마도 창의적인 사고를 잘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창의적인 사고는 인공지능이 가장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켜 나갈 때 그 분야는 새로운 산업이 되고 새로운 직업이 될 것입니다. 그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인재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스스로 깨우치고 발전시켜서 새로운 기술의 도움을 받아 그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좋아한다는 말은 창의력의 다른 말이니까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학생들이 신산업을 만들어 갈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잘 받아서 열심히 코딩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미래 세상이라고 해서 모두 다 코딩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딩마저도 코딩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학생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던지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고 키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을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인재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스스로 깨우치고 발전시켜서 새로운 기술의 도움을 받아 그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해서 모두가 인공지능과 로봇을 만들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컴퓨터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컴퓨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한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을 만드는 사람들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그 혁명을

이끄는 기술만 주목해서는 안 되는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직접적인 기술보다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바로 그 분야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교육은 우리 학생 개인의 장점을 가능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장점들을 다양한 방향으로 키워 줄 수 있는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인재 키우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우리 학생들 개개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그 능력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숙제를 풀어서 제출해야 할 마감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㉓

**학생 중심 공간혁신 프로젝트 아(아이).지(知).트(TRY)**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는 민주주의 배움터이자 아이들의 공간이라는 철학으로 학생이 참여하고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 공간 재구성 프로젝트로 아.지.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지.트는 아이들의 지혜를 모아 시도해 보자는 뜻이다. 아.지.트 프로젝트는 창의성과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를 학교라는 공간에서 12년을 보내게 되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다양한 배움의 공간이자 삶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한편, 학생들이 참여해 공간을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참여와 소통의 가치 실현으로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2018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지.트 프로젝트는 현재

초등학교 5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3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중학교는 자유학년제와 연계 운영, 고등학교는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과 연계 운영해 가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은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가고 있으며, 참여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학교 공간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 연수 프로그램 운영, 인사이트 투어 등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8년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포럼, 좌담회 등을 통해 학생 중심 학교 공간혁신 프로세스를 마련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스마트 인재 육성



충남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교육을 위해 디지털 교과서 정책연구학교를 운영 중이다.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된 보령 청파초등학교는 '배움 중심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통한 문제 해결능력 신장'이라는 주제로 2년째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익숙해지기까지 교사와 학생 모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수업 시간은 늘 부족했으며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배움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줄이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워야 할 핵심 개념을 담은 디딤영상을 만들어 거꾸로수업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디딤영상을 보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한가 지씩 했으며, 수업에서 친구들과 하브루타식 토의토론을 하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갔다. 토의토론식 수업을 하다보니 자연

스레 발표 기회가 점점 많아졌고,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며 학습한 결과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었다. 3~4학년 학생들은 올해 처음 도입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360도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에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생 참여와 표현 기회 확대를 위해 스마트 책 쓰기, 스마트 역사탐구, 스마트 밴드 등의 학생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활용능력 및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 타자왕 선발대회, 교과 연계 정보검색대회를 준비 중이다.

충남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예방하고,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올바른 시민성을 기르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배움 중심 수업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충남 교육청 학생들이 미래 핵심 역량과 감성이 풍부한 학생들로 자라나길 기대해 본다.



## 청소년과 마을이 함께 배우고 협력하는 행복마을학교



경남교육청은 지난 4월 27일 전국 최초로 체험형 교육시설을 갖춘 센터형 마을학교인 '행복마을학교'의 문을 열었다.

행복마을학교는 청소년과 지역민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마을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형 배움터를 지향한다. 행복마을학교는 원

도심 재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폐교된 옛 구암중학교 1~2층에 20개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목공실, 제빵실, 요리실, 커피실 등 10개의 체험교실과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위한 자치배움터를 갖추고 있다.

행복마을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학교연계 진로체험프로그램, 심화프로그램, 지역민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생 자치배움터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행복마을학교는 배움을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은 청소년들이 다시 행복마을교사로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치는 모습, 지역민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행복마을교사로 되돌아오는 선순환하는 마을학교의 모습을 꿈꾸고 있다.

다양한 체험시설을 기반으로 청소년과 지역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을 돕는 행복마을학교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마을교육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 우리 아이들의 행복 충전소 두루두루 놀이터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운동장 한켠, 긴 줄이 힘차게 돌아가고 노래에 맞추어 아이들이 팔짝팔짝 뛰다. 축구 골대 앞에서는 무궁화꽃이 피어나고 있다. 고무줄 놀이, 공기놀이, 비석치기, 산가지놀이, 달팽이놀이... 학교 교정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놀이마당들이 펼쳐진 이곳은 두루초등학교(교장 김남주) '두루두루놀이터'. 이 놀이터는 지난 5월부터 화~목 방과 후에 열리고 있다. 아이들이 학부모회 놀이동아리의 도움을 받으며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긴다.

두루초는 2018년도 '놀이 활동 선도학교'로 지정되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회 놀이동아리를 모집하였다. 16명의 어머니가 놀이 문화를 활성화시키려는 뜻에 마음을 모았다.

3월 말, 첫 모임을 가지고 한 달이 조금 넘는 동안 놀이에 대



한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미르초 '와글놀이터' 놀이 지도사에게 연수를 받았다. 어린 적 익숙했으나 어른이 되면서 가물가물해진 여러 가지 놀이를 익혀 '두루두루 놀이터' 개장을 준비했다. 놀이에 함

께 할 아이들을 모집하여 처음에는 158명이 참여 의사를 보였는데 친구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의 참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제 학교의 모든 공간은 아이들의 놀이와 웃음소리로 북적인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전통놀이, 생태놀이, 또래놀이 등 다채로운 놀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놀이활동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수평화로 입시과열 완화

고교학점제는 쉽게 말해 현재의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배울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선거공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최근 주요 교육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가 작년 11월 2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체계적인 준비,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고교체제 개편, 수업 및 평가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한 제도를 마련한다. 셋째, 연구, 선도학교 지정, 운영 및 일반학교 대상 지원 확대를 통해 학점제 도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자신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 수업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자신의 학습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를 이수하고, 이수한 학점을 합하여 기준을 넘으면 졸업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선택’의 폭이 확장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를 통해 고교 서열화, 입시 과열을 완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 이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교육과정 이수제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은 ‘학년제’이고, 고등학교 급은 ‘단위제’이며, 대학교 급은 ‘학점제’이다. 참고로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초·중·고는 모두 ‘학년제’이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엔 제2차 교육과정(1963)에서 “고등학교에서는 단위제를 채택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단위제를 따르고 있다. 대학의 학점제는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고등학교 급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위제’는 학년제와 학점제 사이 중간쯤에 끼여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성격으로 말미암아 단위제는 교육과정 운영 주체의 인식과 현실 운영 여건에 따라 학점제에 준하여 운영될 수도 있고, 학년제에 준해서 운영될 수도 있다. 실제로 있어서는 단위제가 학년제처럼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 고교학점제 도입의 의의

따라서 고교학점제 도입의 의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 즉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보장과 정상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실제 학생의 선택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시험범위로 인한 제약과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의 경우도 고2와 고3에서 수학 과목을 모두 들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선택’의 폭이 확장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를 통해 고교 서열화, 입시 과열을 완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학교교육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자동 졸업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고, 책임지는 교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자발적으로 수업을 신청한 학생이 수업의 목표 역량을 배우도록 교사의 책임교육을 요구한다. 즉 만약 수강생이 학업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면 재이수(F)를 부여하여, 다시 배우거나 다른 과목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다만, 재이수 도입은 논란이 예상되므로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고교체제 서열화를 막고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로 대체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고교체제의 수평적 다양화를 의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직적 다양성 즉 고교서열화(영재고-전국형 자사고-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광역형 자사고-전국단위 자율학교 등)를 심화시켰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는 학교 내의 교육과정이 개별화 맞춤형으로 제공되어 모든 학생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의 근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고교학점제의 강력한 근거 중 하나는 ‘고등학교 교육은 진로·적성교육을 중심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다.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이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지만, 이 사실만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반드시 진로 준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들의 선택권 못지않게 제대로 된 배움의 권리도 중요하다. 기존의 입시교육에서처럼 분절적이고 나열적인 엄청난 양의 지식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 각 교과

의 핵심개념과 이론들을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고교학점제가 과연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은 거의 모든 과목에서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거의 모든 과목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이다. 학교 현장과 공감이 없다면 시행할 수도 없고,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있어 학교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하는 절차적 정당성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

## 고교학점제의 성공은 디테일에 있다

‘고교학점제’란 대학의 학점제(credit system)를 고교에 도입해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교실을 다니며 수업을 듣고, 누적된 학점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마련한 까닭은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 대학입시와 연결 관계 완화 필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가 존재 이유를 갖고 대입을 위한 졸업 인증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입시로 연결되고, 엄연히 치열한 입시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입시에 부담을 덜고 오롯이 진로에 따라 수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낭만적인 접근이며, 고교학점제의 결실을 기대하기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도 짧다. 당장 학생들과 학

부모들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다 수능은 또 어떻게 준비하나? 상대평가와 수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대입체제 하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설 것이다. 그러니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전전긍긍하는 마음을 탓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절대평가와 같이 교육적으로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도 과제 없이 학점 잘 주는 편한 수업 위주로 듣고 취업 준비를 하는 형태가 고교에서도 재현될 수 있으며, 일반고와 특목고로 수직적 서열화가 이루어져 있는 고교체제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면서 학생 개인이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흥미를 존중하면서도 성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학생 자신이 선택한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참여도가 높아질 테고, 수업 당 학생 수가 적어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학습방법을

모르거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일정수준의 성취기준 도달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에 대해 세심한 고민을 해야 한다.

###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고교학점제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는 성공해야 한다. 학업 성적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길 바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물론 성적이 낮은 학생은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 꿈을 동시에 꾸는 일반고의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는 큰 도움이 된다. 넉넉히 잡아도 대입은 전체 고등학생의 상위 20% 그들만의 리그이다. 이걸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대입에만 눈길이 팔릴 때 학업 성취가 낮거나 중도탈락이 우려되거나 졸업 후 사회생활을 바로 할 학생들을 백안시하게 된다. 그리고 국영수사와 중심의 심화선택 과목이 늘어나는 방식의 고교학점제가 확대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학교 간 선택에 맡기기보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교학점제가 상위권만이 아니라 모

고교학점제가 상위권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의미 있기 위해서는 입시와 연결 관계가 완화되고 다양한 실용적인 과목들이 개설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현행 50% 정도의 필수 수업을 조금 더 간소화하길 바란다.



든 학생에게 의미 있기 위해서는 입시와 연결 관계가 완화되고 다양한 실용적인 과목들이 개설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현행 50% 정도의 필수 수업을 조금 더 간소화하길 바란다. 교육부가 수많은 평범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로를 꿈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교학점제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마음이 개운치 않다. 상대평가에 따른 내신 산출과 교사들의 행정업무 증가 얘기가 주를 이룬다. ‘선택한 과목들을 배워 좋지만 상대평가 때문에 걱정’이라는 학생 인터뷰를 접하고 필자도 우려스러웠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해당학교 교사들이 ‘이 학생은 선제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학교에 재학 중이며, ~을 진로로 심화과목들을 수강했다.’라는 기록을 할 것이다. 학종 도입 초기 소논문이나 학교협동조합을 이끌었던 학생들처럼, 한 발 앞서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황금을 팔게 될 것이다. 중·고등학교의 과도한 선행학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일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마을교육에서는 대학교 전공 지식급의 선행학습은 오히려 장려하고 있지 않다.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자유롭게 배

우고, 더 발전해서 ‘대학의 전공수준의 지식’과 학점제를 통한 ‘스펙’이 생기면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 도농 간의 격차 풀어나갈 강력한 의지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걱정은 ‘도농 격차’다. 교사 수와 교실 같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 교과는 전문가들이 여기까지 오려고도 안할 테고, 교통이 불편하고 학교 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 학생이나 교사가 이웃학교에 갈 수도 없다. 일단 교육부의 예산과 확고한 정책 드라이브를 기다릴 따름이다.

행여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을 ‘교사들이 복잡하고 부담스러워 한다’에서 찾지 않기를 바란다. 행정처리 인원이나 전문 과목, 미이수 학생을 위한 보충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보강하면 된다. 주관은 ‘학교 자체적’이 아니라 ‘교육청 단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교사로서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할 테고 수업이나 평가에 더 신경을 써야 해서 부담은 되지만 우리 교사들은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상

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도 안다. 교사의 경우에는 정해진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지만, 좀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더 심화된 지식을 전달하면서 교사도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교사들의 석박사 취득률을 보라.

마지막으로 얼음을 녹이는 수준이 아니라 깨부수는 정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당연히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 학교 2년차가 되는 2019년까지 고교학점제와 연동된 대입 개선안으로 정책 효과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현 정부가 끝나면 슬그머니 이 정책이 사라지겠지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지적되지만,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가 본령에 근접하고 더불어 과열된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제도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2022년. 그때까지 우리 교사들은 준비를 하고 있겠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한마디. 모든 정책은 이론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교학점제 화이팅! 🙌

NEWS BRIEFING

happyedu.moe.go.kr 2018.06

유아교육, 초등돌봄 발전 위한  
교육부-KB금융그룹 업무협약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은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 발전을 위해, KB금융그룹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7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KB금융그룹이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에 동참하는 교육기부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은 5년 간 국·공립 유치원(병설 기준)을 최대 250개 학급까지 신·증설하고, 돌봄교실 약 1,700여 실에 대한 혁신적 리모델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초등돌봄 본격 확대를 위한  
현장 소통



교육부는 5월 29일 원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추진한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참석자들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초등돌봄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돌봄교실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정책은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특기·적성 계발을 통한 성장을 돕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은 줄게 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추경의 조속한 집행과 KB금융그룹 기부금 활용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학부모에게 더욱 감동을 줄 수 있는 돌봄교실을 확대·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로 부과



교육부는 5월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교육부, 유아들의 꿈은  
놀이에서 자란다 워크숍 개최



교육부와 유아정책연구소는 5월 3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유아들의 꿈은 놀이에서 자란다”를 주제로 유치원 학부모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이 계획된 것은 유아에게 놀이는 생활이자 배움의 과정으로 행복감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놀이시간이 부족하고,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의 놀이시간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정서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유아의 행복 증진을 위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문화 조성이다. 총 3회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2차 영남권(6.20. 대구광역시교육청), 3차 호남권(6.21. 광주학생독립기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치원 버스사고 아픔 딛고  
한국학교 개교



지난해 5월 9일 중국의 웨이하이 지방에서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 참사가 난 이후, 5월 25일 교육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한국학교인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한국학교’가 개교식을 개최하였다. 통학버스 사고 이후 유가족은 학교 설립 기금 마련을 위해 보상금 전액을 기부하였으며, 동포사회도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도 신속하게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운영승인 신청 기간을 단축하고, 개교지원비 등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학교장을 포함하여 교원 총 14명과 함께 재외 한국학교 최초로 행정실장을 파견하는 등 웨이하이한국학교 개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초·중·고생, 언제 어디서나  
창업체험교육 문 활짝 열린다



교육부는 '18년부터 초·중등학교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체험교육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고등교육 단계 이후에 집중되어 있던 창업교육을 초·중등교육 단계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미래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이 도전(기업가)정신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갖춘 혁신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창업체험교육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초·중·고 학생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창업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확대한다. 온라인에서는 기존 중·고교 단위로만 사용 가능했던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을 초·중·고교 학생, 교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가상 창업체험(Go! Startup)’ 기능을 신규로 탑재해, 학생들이 가상 기업을 설립하고, 개인별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 지난호 독자 리뷰

####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

장래희망 1순위로 꼽히는 직업이 교사이고, 교사는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이제는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는 문장이 와 닿았다. 또한, 이 글에 나온 배움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교사의 존재론적 본질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모니터단 민혜진

#### 놀 줄 아는 어린이로!

요즘 아이들은 놀 권리마저 빼앗긴 채로 집과 학원을 기계처럼 오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현실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놀이 축제는 참교육 현장이 아닐까 한다.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다운 모습이 더 중요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짧지만 강한 기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이 이뤄졌으면 한다. - 모니터단 박유미

### Event

6월호 표지이야기 '통일'을 키워드로 톡톡 튀는 재미난 행사를 지어주세요.

다음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 지난호 당첨자

- 김민경 부산시 금정로
- 전정희 부산시 서구구덕로
- 최창학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행복한 교육 웹진에서 더 다양한 교육정보를 만나보세요.

<https://happyedu.moe.go.kr>

정확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발행일 2018년 6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편집인 대변인 임창빈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안순익  
 교육연구사 정용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73

#### 편집실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홍지화 홍수명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 ‘교육지원 한눈에’에서 내게 꼭 맞는 ‘교육지원’ 혜택 한번에 찾아보세요!

- 약 60여 개의 교육복지·지원 정책이 **한곳에**
- 나만의 맞춤형 교육지원 정보를 **한눈에**
- 신청시기 및 정책내용 변경 알림도 **한번에**

교육지원 한눈에

<http://eduone.moe.go.kr>

